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 관련 감염예방·관리 안내

(장례 업무 담당자용)

제1판
(2022. 4. 25.)

- 이 안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신 분의 장례를 보다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감염예방·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이 안내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와 국제기구 및 국외 주요국의 권고지침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제시하는 사항 외에는 관련 업무 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제3판)」은 이 안내 배포에 따라 폐지됩니다.

〈목 차〉

1. 기본사항

- 1.1. 목적
- 1.2. 원칙
- 1.3. 적용 대상

2. 시신 관련 감염위험과 예방

3. 장례 시 감염예방·관리

- 3.1. 시신과 접촉 시 감염예방(사망장소에서 이송까지)
- 3.2. 시신의 위생관리 시 감염예방(장례식장)
- 3.3. 유족의 참관 시 감염예방
- 3.4. 운구 및 화장시설

1. 기본사항

1.1. 목적

- 이 안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이하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가족의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장례 업무 담당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2. 원칙

-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고, 장사방법과 절차에 있어 유족의 의사를 존중 하며, 유족의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지도사 등 업무 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감염예방·관리 사항을 면밀하고, 올바르게 준수하여야 함
- 장례에 참석하는 유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장례 절차 진행시 장례지도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1.3. 적용 대상

-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어 격리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

- ▶ 사망 후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경우 포함(사후 확진)
-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님에 유의

2. 시신 관련 감염위험과 예방

- 코로나19는 감염성이 있는 호흡기 비말을 직접 흡입하거나, 눈·코·입 등 점막에 접촉한 경우 전파되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으로부터의 감염 위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한하여 가능
 - 시신에 대한 처치나 관리 시 시신으로부터 호흡기 비말 배출이 있는 경우
 - 시신 내 관(튜브) 제거 등 시신으로부터 에어로졸 발생이 있는 경우
 - 시신의 체액(분비물 등)에 젖은 옷이나 린넨 등을 보호구 없이 직접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 업무를 담당하는 장례지도사 등은 △감염예방·관리에 대한 교육▶,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착용의 등에 대한 훈련을 사전에 충분히 받아야 함

▶ 감염의 전파기전, 전파경로에 따른 감염예방법(표준주의, 전파경로별 주의지침) 등

-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에 대한 처치 또는 관리 시 손위생과 개인보호구 착용 등 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개인보호구, 손소독제, 소독티슈 등 방역물품은 사전에 구비하여 적소에 비치하여야 함

3. 장례 시 감염예방·관리

3.1. 시신과 접촉 시 감염예방(사망장소에서 이송까지)

- 시신과 접촉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감염예방·관리 조치를 적용한다.

- 접촉 상황에 따라 권고되는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 “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시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참조

- 시신 접촉 중 유족 등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 유지(1.5미터 이상 권장)
- 시신을 움직이게 되는 경우 사전에 시신의 호흡기 비말이 배출되지 않도록 천이나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입과 코를 덮음(천이나 마스크는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
- 시신을 이동하기 전 린넨천으로 감싸거나 시신백▶에 수습

▶ (시신백 사용 권고 상황) 시신의 체액 누출이 많거나, 부검 후, 장례 전 일정기간 시신을 보관해야 할 경우, 업무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시신의 관리(수습, 이동 등)에 관여하는 경우 등

▶ 시신백 사용시 고려사항

- 특별상황(다량의 체액 누출 또는 장거리 이송 등)에는 이중 시신백의 사용을 권고하며, 시신백 바닥에 흡습포를 확인하고 체액 유출이 많은 등 필요한 경우 흡습포 추가
- 시신백의 재질은 미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플라스틱 이상으로 견고하여야 함
 - * U자형 지퍼식은 중앙 지퍼식보다 시신과의 접촉이 적음

- 시신백에 시신 수습 시 겉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 시신백의 겉면이 시신의 체액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시신백의 겉면과 시신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함
- ▶ 시신백의 지퍼를 닫은 후 겉면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닦을 것
- ▶ 이송카트에 체액 등 오염이 있는 경우 소독제로 닦을 것

- 린넨천으로 시신을 감싼 경우 분비물 등으로 젖은 부위가 없는지 재확인
- 시신 이송 시 “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시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착용
 - (시신백 사용) 기본 방역수칙에 따라 필요시 마스크, 장갑을 착용
 - (시신백 미사용) 이송하는 요원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방수성 긴팔가운이나 에이프런을 착용

3.2. 시신의 위생관리 시 감염예방(장례식장)

- 시신의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장례지도사는 반드시 감염예방관리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할 것
- 시신의 분비물을 닦거나 수의를 입히는 등 위생 관리 시 다음의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
- 접촉 상황에 따라 권고되는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 ▶ “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시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참조

- 시신의 비강, 구강 등에서 체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는 사후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면솜을 교체하여 체액 누출을 막을 것
- 시신을 움직이게 되는 경우 시신의 호흡기 비말이 배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천이나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시신의 입과 코를 덮을 것

- ▶ 시신 위생관리시 제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며, 최종 역목(고인의 얼굴을 천으로 씌) 작업 전 또는 유가족 참관 전 제거

- 시신 위생관리 과정에서 시신의 과도한 움직임이나 복부 및 흉곽을 압박하는 행위는 바이러스 배출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복부와 흉곽이 압박되지 않도록 주의

- ▶ 시신을 묶는 작업(염포 멧베)은 생략하거나 최소화하며, 매장과 탈관을 하는 경우 멧베 작업 시 업무자 안전에 유의하여 시행

- 시신 접촉 관련 업무 중 (본인의) 눈이나 얼굴을 만지지 않으며, 다른 활동을 함께 실시하지 않을 것

- 입관 시 시신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시신을 천으로 감싼 후 옮길 것. 만약 시신의 체액 누출이 심하여 시신 위생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신 위생관리를 하지 않고 시신백 상태로 입관할 수 있음
- 입관 후 관의 외부 표면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닦아야 함
- 업무를 끝낸 후 순서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보호구를 탈의하고, 마스크는 마지막 단계에서 제거한 후 흐르는 물에 손씻기를 할 것

3.3. 유족의 참관 시 감염예방

- 참관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참관실에서 참관하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참관실이 별도로 없는 경우 참관하는 유족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고인과의 거리를 유지(최소 1.5미터 이상)해야 함
- 유족은 시신(또는 시신백)을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유족이 부득이하게 시신과 접촉(손을 잡는 등)을 하는 경우 장례지도사로부터 감염예방절차▶를 교육받은 후 장례지도사의 지도하에 시행

▶ 개인보호구 4종 착용과 탈의방법 및 탈의 후 손씻기 등

-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등 감염에 취약한 유족의 경우는 가급적 참관실에서 실시하고 시신을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유족이 부득이하게 시신을 접촉하였을 경우에 장례지도사는 유족의 개인보호구 탈의와 손씻기 준수 여부를 확인

3.4. 운구 및 화장시설

- (운구) 운구에 참여하는 사람은 마스크(필요시 장갑)를 착용하고, 유족이 운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화장시설) 고별장소에서 유족의 애도를 지원

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시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구분	상황, 행위	수술용 마스크	KF94 동급이상의 마스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비닐 에이프런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장례	사망 확인(검안)		●	●	●	●
	시신 이송		●	●	●	
	시신 수습 시신 위생관리 수의 입히기 입관 시		●	●	●	●
	시신 접촉		●	●	●	●
	시신백 이송, 관 운구	● (필요시)		● (필요시)		
청소· 소독	청소 · 소독		●	●	●	●
폐기물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
	의료폐기물 운반	●		●	●	

□ 환경 소독과 폐기물

- 환경 청소 및 소독 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 청소·소독 시작 전, 중, 후에는 충분히 환기하고, 기계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자연 환기와 기계환기를 병행한다.
- 시신과 접촉한 환경 표면과 기구(도구) 등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닦는다.
- 소독제는 코로나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별 사용량·사용 방법·주의사항을 준수한다.

▶ 참고 : (소독제 목록 및 정보제공) 환경부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소독제를 준비하고,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후, 물에 적신 천으로 닦아낸다.

▶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의 경우 1,000ppm 희석액 사용하고 1분 이상 소독제의 표면 접촉 유지 필요: 5% 차아염소산나트륨 10 ml + 물 490 ml

- 금속표면은 70% 알코올로 닦을 수 있음
- 혈액 및 체액으로 눈에 띄게 오염된 표면은 소독제로 일정 시간 접촉 후 닦아낸다.

▶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의 경우 5,000ppm 희석액 사용하고 1분 이상 소독제의 표면 접촉 유지 필요: 5% 차아염소산나트륨 50 ml + 물 450 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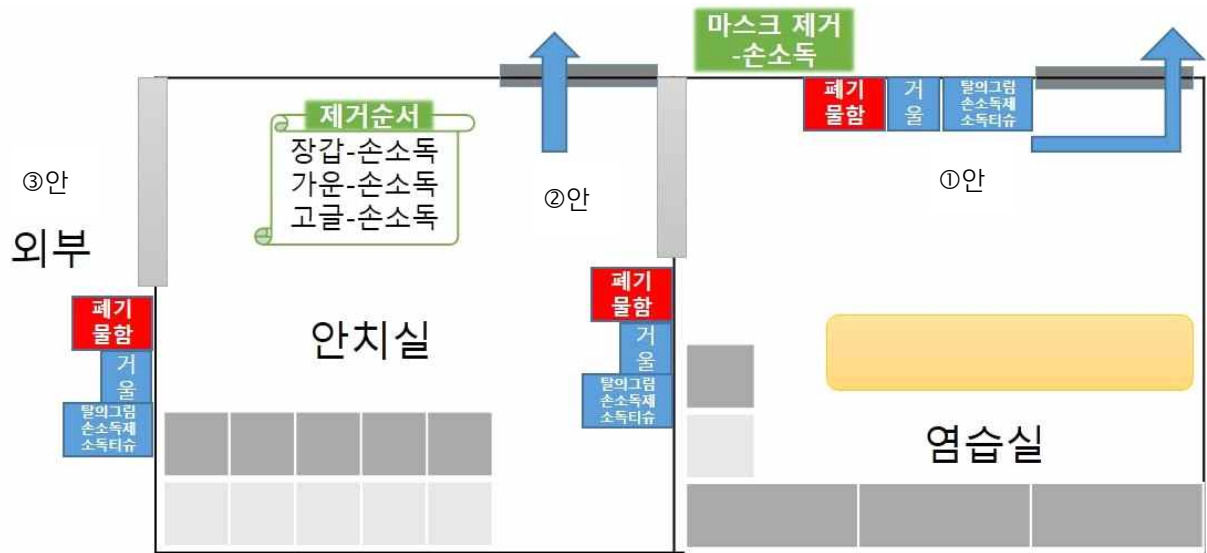
※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은 매일 새로 희석해서 사용한다.

- 코로나19 시신을 다루거나 시신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바로 처리한다(부록 3 참조).

□ 구역별 관리

- 안치실, 염습실 등은 항상 깨끗하고 적절하게 환기되어야 하며, 조명이 적절해야 한다.
- 안치실, 유족 참관실 등에서는 흡연, 음주, 식사 등은 하지 않는다.
- 코로나19 시신은 식별 레이블 또는 범주 태그로 식별가능하도록 한다.
- 개인보호구 탈의장소는 시설의 여건에 따라 마련하고, 사용된 보호구로 인하여 환경 표면이나 물품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 (팔을 뻗었을 때 접촉되는 면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 구비물품: 전신거울, 소독티슈, 손소독제, 폐기물함, 탈의 절차(게시)
 - 거울 앞에서 절차에 따라 제거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마스크는 탈의장소를 벗어나서 제거한 후 새 마스크로 교체)
 - 사용 후 충분히 환기, 소독 실시

▶ (예시) 개인보호구 탈의구역 장소별 설정(①염습실 내부 또는 ②염습실 외부 또는 ③욕외)



- ①안: 염습실 내부에서 탈의하는 경우 장갑-가운-안면보호구 제거 후 염습실을 나와 마스크 제거, 손소독 후 새 마스크 착용
- ②안: 안치실에 탈의구역을 설치한 경우, 염습실에서 오염된 장갑을 벗고 손소독 후 안치실로 나와 가운-안면보호구를 제거하거나, 안치실로 나오는 동안 문을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안치실로 나온 후 장갑-가운-안면보호구 제거하고, 복도로 나와 마스크를 제거, 손소독 후 새 마스크 착용
- ③안: 외부에 탈의구역을 설치한 경우, 염습실에서 오염된 장갑을 벗고 손소독 후 외부로 나와 가운-안면보호구-마스크를 제거, 손소독 후 새 마스크 착용

□ 사용 원칙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제품을 제외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는 반드시 제조사 권고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 처리
-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려면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함
 - 감염원과 접촉 전에 착용(예: 환자 접촉 전, 격리병실 밖)
 - 착용 할 때 보호구별 착용 방법 준수(특히, 호흡기보호구의 밀착 상태)
 - 사용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착용 상태에서 환자 이외의 주변을 접촉하여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벗을 때 본인의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무조건 오염으로 간주하여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려 폐기
- 모든 개인보호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파손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사용·보관하지 말고 폐기
- 사용한 개인보호구 중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독 처리가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적절한 소독 처리 후 사용
- 눈에 보이지 않게 손과 신체 일부,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벗은 후에 항상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과 개인위생 철저

□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및 제거 원칙







- 착의(착용)
 -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에 따라 미리 물품을 준비하여 올바른 착용▶ 순서와 방법으로 착용

- ▶ 머리는 단정히 묶거나 고정하고 시계, 장신구 등을 제거하여 오염 방지
 - ▶ 탈수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전 수분을 보충하고 미리 화장실에 다녀옴
 - ▶ 착용 후 오염, 파손이 있을 경우 처치, 행위 사이에 개인보호구 교체
- 탈의(제거)
 -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오염장소에서 벗어난 곳)에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바로 버림

□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용도

○ 개인보호구는 질환별 또는 감염경로, 감염 노출 상황·행위, 용도에 맞게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

○ 개인보호구별 특성과 용도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일회용 장갑 (Glove)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 오염 방지 -노출정도를 고려하여 재질 선택 -파우더 알려지 있을 경우 파우더 없는 제품 또는 나이트릴 제품 사용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Gown)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튼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모자 (Hair cap)	머리의 오염	비말이 머리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	
고글 (Goggle)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눈의 점막 오염 방지 -고글 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후 사용, 보관 	
안면보호구 (Face shield)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의 점막과 안면부 오염 방지 - 노출 위험 정도에 따라 고글 대신 착용 - 안면보호구 재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호흡기보호구 : 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 입 점막을 통해 호흡 시 병원체 입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 - 적용상황 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확진환자 격리병실 입실 시(의료 종사자, 방문객 포함한 모든 출입자) • 기침유도 시술 시 • 에어로졸 생성 처치 시 • 의심/확진환자 이송 시 등 	

□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안내

○ 개인보호구 4종 착용 순서

			
1.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	2. 손 위생을 시행한다.	3. 가운을 입는다.	
			
4. 마스크를 착용한다.	5.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킨다.	6.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 흡입/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7. 고글이나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			
			
		8. 장갑을 끼고 옷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하여 착용한다. (경우에 따라 장갑을 한 벌 더 착용할 수 있다.)	

○ 개인보호구 4종 탈의 순서

1. 장갑을 벗는다. 한 손으로 반대편 장갑을 벗겨 손에 쥐고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		2. 속장갑을 착용한 경우 속장갑을 소독하고, 속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손 위생을 시행한다.		
3. 가운의 환자 접촉 부위를 안으로 말아주면서 신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탈의한다.		4. 손 위생을 시행한다.		
5. 고글 혹은 안면보호대 앞면을 만지지 않고 제거한다.		6. 손 위생을 시행한다.		7. 마스크를 제거한다.
8. 손 위생을 시행한다.		9. 속장갑(착용한 경우)을 제거한다.		

부록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 환경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

□ 격리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발생 및 보관]

- **(배출)** 배출장소에서 바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이동 최소화)하고 밀폐(전용 봉투+전용용기 2중 밀폐)

- ▶ 폐기물 투입 전과 밀폐 후 소독 처리
- ▶ 개인보호장비(마스크, 보호복)와 같이 전용봉투가 찢어지거나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은 합성수지 전용용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합성수지 전용용기 대신 골판지 전용용기를 사용할 수 있음

- **(보관)** 해당 폐기물은 당일 반출 원칙, 보관 최소화
 - 보관 시 지정된 보관창고에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 보관창고는 매일 소독하고,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은 구조 및 외부인 출입 제한

[수집·운반]

- 전용용기에 밀폐 포장한 상태로 임시 보관장소를 경유하지 않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직송하여 소각처리

- ▶ 관외로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이 불가피하고 차량·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재용량이 작은차량에서 큰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허가받은 임시보관창고 경유 가능. 단, 일시 보관 후 당일 운반

- 밀폐된 적재함에서 운반 중 4℃ 이하 유지, 적재함 사용 시마다 약물소독

[현행규정보다 강화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관리방안]

구분	배출자 보관	운 반	처 리
격리폐기물 현행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일까지 보관 ○ 합성수지 전용용기 ○ 전용 보관창고 (조직물류 냉장보관) ○ 보관창고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운반 ○ 임시보관(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기한 2일 ○ 전용보관 창고 (조직물류 냉장보관)
격리폐기물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위탁처리 (1~2일 이내 보관) ○ 냉장보관 원칙 ○ 전용용기 투입전·후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보관 금지, 당일 운반 ○ 사용시마다 차량약물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소각처리

- ▶ 단, 특별자치도와 육지와 연결이 되지 않은 도서 지역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 보관(4일 이내)하되 신속 운반·처리(2일 이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p>의료폐기물 전용봉투</p>	<p>합성수지 전용용기</p>	<p>골판지 전용용기</p>

부록 4

묻고 답하기

Q1. 코로나19로 사망한 고인을 접견할 때 유족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원하는 방법으로 고인과의 애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신과 직접 접촉시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인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의료진 또는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시신과 시신백 등을 접촉하지 않으며 접견하기를 권고합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사람(심각한 기저질환 등)은 시신과의 직접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을 위한 장례식에 참석하면 감염될 위험이 있나요?

- 장례식 참석으로 감염이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장례식과 관련한 감염위험은 모임·행사와 유사한 감염위험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한 감염위험이 아닌, 장례식장 참석자 중 감염원이 있는 경우에 대한 감염위험에 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장례식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어 실내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벗지 않으며, 짧은 시간 머무르는 것이 감염예방을 위해 권장됩니다.

Q3. 코로나19로 인한 고인의 유품을 간직할 수 있나요?

- 간직하고 싶은 유품은 환경부에서 승인된 방역용 소독제로 소독 및 충분한 환기 후, 세탁물의 경우 세탁(온수세탁) 후 간직하기를 권고합니다.

Q4.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19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하여 주로 전파되며, 이러한 유형의 전파는 사망 후에는 현저히 감소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사망자와 직접 접촉한 표면이나 물체를 만진 후 입, 코, 눈을 만지는 행위 혹은 시신을 과도하게 움직임으로써 배출된 호흡기 비말을 흡입하게 되는 경우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을 직접 접촉하는 경우 적절히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손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 감염예방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감염을

예방합니다.

- 이를 위해 사전에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선택, 사용방법과 착탈의 훈련을 받고 감염예방 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수습 시 시신백은 꼭 사용해야 하나요?

- 시신백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신의 체액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시신의 체액유출이 많거나 장거리 이송 등의 경우에는 시신백 사용을 권고합니다.

Q6. 코로나19 시신백을 이송하거나 입관된 상태로 운구하는 경우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코로나19 사망자를 시신백에 수습한 이후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시신백을 이송하는 사람 또는 입관후 운구하는 사람은 기본 방역 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필요한 경우 장갑을 착용하면 됩니다.

Q7. 코로나19 시신으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있나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식장 이용 후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이용을 기피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코로나19 시신에 의한 감염사례 보고 또는 감염증거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치른 장례식장 사용으로 인한 코로나 19 감염의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장례식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참석한 경우 다른 참석자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합니다.